

지채문[智蔡文]

대쪽 같은 충심으로 왕을 지켜낸 장수

미상 ~ 1026년(현종 17)

1 개요

지채문(智蔡文)은 10세기 말~11세기 초에 활동했던 고려의 무장이다. 2차 고려-거란 전쟁 당시 거란군을 피해 현종(顯宗)이 수도인 개경을 떠나 남쪽으로 몽진을 떠났을 때, 대다수 신하들과 군사들이 도중에 현종을 포기하고 도망쳤음에도 끝까지 현종의 곁을 지켰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날의 황해북도 봉산군(鳳山郡)에 해당하는 봉주(鳳州)에서 자랐고, 1010년(현종 1) 2차 고려-거란 전쟁 직전에는 장교인 중랑장(中郎將)에 임명되었다. [관련사료](#)

2 2차 고려-거란 전쟁 발발과 서경 전투

10세기 후반 동북아시아는 송(宋)과 거란이 대치하는 형세였다. 송은 과거 후진(後晉)의 석경당(石敬瑭)이 황제가 되기 위해 거란의 도움을 구하며 넘겨주었던 연운16주(燕雲十六州)를 되찾고자, 직접 거란을 공격하는 한편 여진 부족들 및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거란의 후방을 압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986년(성종 5) 송의 대대적인 공격이 실패로 끝난 뒤, 거란에서는 여진 부족들과 고려를 제압해 그 후방을 정리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발한 993년(성종 12)의 1차 고려-거란 전쟁 결과 고려는 송과의 국교를 끊는 대신 압록강 동쪽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거란에 요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다.

어느 정도 후방을 안정시킨 거란은 다시금 송을 공격했고, 마침내 1004년(목종 7) 전연(澶淵)의 맹약을 맺어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송과의 대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대송(對宋) 전선이 안정되자 거란에서는 다시금 고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침 고려에서는 1009년(목종 12) 강조(康兆)의 정변(政變)이 일어나 목종(穆宗)이 폐위되고 현종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였다. 이에 거란의 성종(成宗)은 대역죄인 강조를 처벌하겠다는 명분으로 직접 40만에 달하는 군대를 거느리고 고려를 침공하니, 곧 2차 고려-거란 전쟁의 시작이었다.

2차 고려-거란 전쟁 초기에 지채문은 오늘날 함경남도 금야군(金野郡)인 화주(和州)에 주둔하며 고려의 동북면을 맡고 있었다. 서북면의 흥화진(興化鎭)을 비롯한 강동6주(江東六州)의 고려군과 더불어 이들이 국경에서 공격을 막아내는 사이에, 개경(開京)에서 출병한 주력군이 도착해 거란군을 격퇴하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흥화진의 양규(楊規)가 분전하여 거란군의 절반을 묶어두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나머지 절반의 거란군이 통주전투(通州戰鬪)에서 강조의 주력군을 대파하고 말았다. 이에 고려의 제2수도인 서경(西京)이 직접적으로 위협에 노출되게 되면서, 동북쪽을 지키던 지채문은 서경을 구원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관련사료](#)

그런데 지채문이 서경에 도착하기 전에, 거란의 성종은 이미 통주전투에서 사로잡은 고려의 장수들을 항복을 권유하는 사절로 삼아 흥화진과 서경으로 보낸 참이었다. 흥화진의 양규는 항복을 거부하였으나, 서경에서는 항복하자는 쪽이 우세하여 이미 항복한다는 글도 작성해놓은 상태였다. 이를 들은 지채문은 급히 진군하여 서경에 도착하고서, 성문을 닫은 장수를 설득해 성문을 열게 하여 가까스로 들어갔다. 그는 항복하지 말라고 서경의 지휘부를 설득해 보았으나 따르지 않자, 몰래 성 밖 거란 군영을 급습해 항복한다는 글을 불태워버렸다. 당시 서경 내부의 여론은 겨우 장수 하나만 지채문에 합류할 정도로 거란에 항복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나, 지채문 등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고려 조정으로서는 최소한 거란군이 서경에 무혈 입성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곧 탁사정(卓思政)이 동북면에서 지원군을 거느리고 와서 지채문은 서경을 장악하고 거란군에 맞설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관련사료](#)

본격적인 서경 전투는 거란의 성종이 개성유수(開城留守)로 임명한 마보우(馬保佑)와 그 호위병들이 서경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먼저 기병 200명이 서경 북문에 이르러 다시금 항복을 권유하자, 탁사정과 지채문은 날랜 기병들을 거느리고 출격하여 100여 명을 베고 나머지는 모두 포로로 잡는 전과를 거두었다. 다음으로 거란 장수 을름(乙凜)이 기병 1,000명으로 마보우를 호위하며 도착하니, 이번에도 지채문이 선봉이 되어 을름을 격파하였다. 고려군의 연이은 승리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서경의 여론이 안정될 수 있었다. [관련사료](#)

거란 성종이 수많은 거란군을 거느리고 서경에 도착하자 다시금 전투가 벌어졌다. 첫 날에는 고려군이 분전하여 승리하였고, 이튿날에는 지채문이 거란군을 격파하니 사기가 크게 올라 서경의 장수들이 도망가는 거란군을 추격해 나갔다. 하지만 이는 거란군의 함정이었다. 마탄(馬灘)이라는 여울에 이르자 거란군은 언제 도망갔냐는 듯이 반전하여 추격에 정신이 팔렸던 고려군을 공격하였고, 대패한 고려군의 장수들이 사방으로 도망치고 서경이 포위당하는 등 전세가 역전되고 말았다. 서경을 지키고 있던 탁사정 역시 동료 대도수(大道秀)를 속여 미끼로 내보내고서는 도망치는 바람에, 1차 고려-거란 전쟁 때 활약하기도 했던 대도수가 분전 끝에 거란에 항복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관련사료](#) 지채문도 마탄 전투에서 패배하고서 그대로 개경으로 향해 서경이 함락 위기에 처했음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관련사료](#) 비록 지채문은 서경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행보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오기 전까지 항복하자는 여론이 우세했던 서경이었는데도, 고려군이 대패하여 흩어지고 성이 포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경 사람들은 이후 스스로 장수를 세우고 군사를 수습해 끝내 서경을 지켜냈던 것이다. [관련사료](#) 여기에는 처음에 서경이 거란에 항복하는 것을 막아낸 지채문의 공도 있었다고 하겠다.

3 피난길에 오른 현종을 끝까지 지키다

통주에서의 강조 패배에 이어 지채문이 전해온 서경에서의 패배 소식은 개경의 고려 조정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했다. 거란에 항복하자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오직 강감찬(姜邯贊)만이 현종에게 항복하지 말고 일단 싸움을 피하며 기회를 엿볼 것을 권하니, 현종은 이 말에 희망을 걸고 최대한 거란군을 피해 남

쪽으로 피난하며 훗날을 도모하려 하였다. 이때 지채문은 현종의 호위를 자청하고 따라 나섰다.

[관련사료](#)

하지만 현종의 피난길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거란군에게 따라잡히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아님 고려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반발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채문이 도착하기 전에 그와 마찬가지로 서경 전투에 참전했던 장수들이 현종의 호종을 자청했었으나, 정작 현종이 피난을 나설 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관련사료](#) 개경을 나선 현종의 행렬이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坡州市)인 적성현(積城縣)에 이르렀을 때, 왕을 맞이해야 할 역졸(驛卒)들이 도리어 왕에게 활을 겨누었다.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楊州市)인 창화현(昌化縣)에서는 강조의 정변에 참여했었던 장수 하공진(河拱辰)이 군대를 돌려 채충순(蔡忠順) 등의 신하들을 잡으러 온다는 선동이 일자, 두 왕후와 지채문을 비롯한 몇 명만 남고 다른 신하들은 다 도망쳐 버렸다. [관련사료](#)

현종이 이처럼 신하들의 배신과 백성들의 반발을 겪었던 이유는 그가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비록 현종이 목종의 후계자로 여겨졌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현종은 강조의 군사력에 힘입어 김치양(金致陽)과 천추태후(天秋太后) 세력을 제거하고 즉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목종이 시해되었다. 거란군은 강조를 처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려를 침공했고, 그 결과 강조는 통주전투에서 패해 사망하고 현종은 급히 수도를 떠나 피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히 고려의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현종의 정통성에 의구심을 가지기 쉬웠으며, 살기 위해 현종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부터 내놓고 적대하는 자들까지 나타났던 것이다. 지채문이 정말 하공진의 군대인지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다녀오려 했지만 현종이 두려워 허락하지 않는 장면은, 현종이 심적으로 궁지에 몰려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지채문은 현종 곁에 그나마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채문은 현종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길을 떠났고, 다행히 하공진을 만나 선동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그를 데리고 현종에게 돌아감으로써 그 맹세를 지켰다. [관련사료](#)

현종의 행렬이 지금의 경기도 광주(廣州)를 지날 즈음, 거란군은 현종이 떠난 개경에 입성하여 궁궐과 민가를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때 현종 일행은 두 왕후와 헤어져 그 행방이 묘연하였는데, 심지어 현덕왕후(玄德王后)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현종의 마음은 타들어 갔다. 왕명을 받은 지채문은 곧 두 왕후를 찾아 현종에게로 모시고 와서 근심을 덜어 주었다. [관련사료](#) 지금의 충청남도 천안시(天安市) 근처인 사산현(蛇山縣)을 지날 때는 일부러 기러기 떼에게로 말을 몰아 놀라서 날아오른 기러기를 활로 잡아서 현종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천안부(天安府)에서는 그때까지 현종을 호종해 온 신하들이 핑계를 대고 떠나버리는 등 여전히 현종을 심적으로 압박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지채문은 일행의 사기를 높여야만 했다. [관련사료](#)

현재의 충청남도 공주(公州)를 통과하며 현종 일행은 공주절도사(公州節度使) 김은부(金殷傅)의 환대를 받았다. [관련사료](#) 개경을 떠나고 나서 사실상 처음으로 만나는 우호적인 대접이었다. 이때의 은공을 인정받아 김은부는 훗날 현종의 장인이 된다. 하지만 공주를 지나 전라도 전주(全州)에 이르렀을 때는 전주절도사(全州節度使) 조용겸(趙容謙)이 관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은 채로 현종 일행을 맞이하였다. 왕을 맞이하는 신하로서는 무례한 태도였다. 더구나 조용겸은 현종을 잡아 전주에 머무르게 해서 위세를 부려보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현종 일행은 전주가 옛 후백제의 수도임을 들어 외곽에 머물렀고, 조용겸 일당이 직접 압박해왔으나 지채문이 때로는 엄히 지키고 때로는 조용히 넘어가며 전주를 통과하였다. [관련사료](#)

그렇게 전주를 떠난 현종 일행이 전라도 나주(羅州)에 도착한 뒤 [관련사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채문은 한 무리가 나아오는 것을 보았다. 앞서 현종은 하공진을 만난 뒤 그를 거란 군영에 사신으로 보내 거란에게 화친을 청하였는데, 바로 이때 하공진이 보낸 문서가 현종 일행에게 도착한 것이었다. [관련사료](#) 하공진은 현종과 헤어지고 나서, 창화현 인근까지 내려온 거란 군영으로 찾아가 현종이 이미 먼 곳까지 갔다고 답함으로써 거란군의 철군을 이끌어내었다. [관련사료](#) 거란군으로서는 후방에 남겨진 고려군 때문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던 데다가, 현종을 잡아 승세를 굳히기에는 너무 멀리 가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2차 고려-거란 전쟁은 끝나게 되었으며, 거란군은 회군하는 길에 양규를 비롯한 고려군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관련사료](#)

거란군이 물러가자 현종은 개경으로 돌아오는 도중 공주에 들어서 지채문에게 상을 내렸다. 보통 상을 줄 때 읽는 글은 미사여구가 들어가고 과장되기 마련이지만, 이때 현종이 지채문에게 내린 글의 내용은 지채문의 공을 묘사하는 데 전혀 아깝지 않다. “짐이 도적을 피하려고 경황없이 먼 길을 갔으나, 따르는 신료들 중 도망가고 흩어지지 않는 자가 없었다. 오직 채문만이 바람과 서리를 무릅쓰고 산 넘고 물 건너며 말고삐 잡는 수고를 꺼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절개를 지켜냈느니라. 참으로 뛰어나고 본받아야 할 점이 많으니, 어찌 남다른 은혜 베풀기를 아까워하겠는가?” [관련사료](#)

4 여생과 사후

2차 고려-거란 전쟁 이후 지채문의 활동은 간략하게만 남아 있다. 1016년(현종 7)에 무관으로서 우상시(右常侍)를 겸하였고 1026년(현종 17)에는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에까지 올랐으며 그 후 사망하였다. [관련사료](#) 거란의 고려침입이 종결되는 3차 고려-거란 전쟁 때 생존했음은 분명하지만 전장에서 활약했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지채문은 모두가 떠나는 중에 홀로 왕의 곁을 지켜 무사히 남쪽으로 피난시킴으로써, 일단 피신하여 반격의 기회를 엿본다는 강감찬의 대전략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때문에 그와 그가 모셨던 현종이 죽은 뒤, 덕종(德宗)은 지채문의 공이 제일(第一)이라며 그 내용을 기록해 후세에 남기도록 했던 것이다.

[관련사료](#)